

지역 매아리

고창장학숙 입사설명회 개최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정)이 21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고창장학숙 입사생과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창장학숙 입사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대학생들이 애학심과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과 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재단은 지난 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지원자를 접수해 서울 장학숙 80명, 전주장학숙 100명을 최종 선발했고 학생들은 오는 27일부터 장학숙 입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안전한 장학숙 생활을 위한 고창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장학숙 위치와 시설현황, 입사등록 및 준수사항, 생활수칙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후 장학숙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창장학숙에 입사한 입사생은 "서울 월15만원, 전주 월13만원의 저렴한 입사비로 경제적 부담이 덜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게 됐다"며 "고창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니 더 정이 가며 고창에 대한 애학심과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박우정 이사장은 "고창군은 도시 못지 않은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숙 운영과 장학금 지원 등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 희망인 지역인재들이 배우고 싶은 만큼, 성장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서, 무등록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단속 검거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20일 일견 건설사무소로 보이는 점포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키기류인 '울 삼바' 게임기 40대를 설치, 불법적 손님들 상대로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 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업을 한 A씨(41) 등을 검거했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민 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성 유발을 방지하려고 사행행위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군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부안=이복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조합원 이용편익 · 실익증진 기여

부안농협 46기 결산총회... 당기순이익 25억 실현 · 이익잉여금 처분안 의결



농민의 실익증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안농협이 김원철 조합장을 비롯하여 고육님 상임이사, 고득수 상임감사 등 110명의 임직원과 62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농협으로 도내 최고의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안농협은 지난 21일 개최된 한 제46기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서에서 자산 3200여억 원을 달성하였고 경영성과도 우수하여 총당금 적립을 비롯한 당기순이익 25억3200만원을 달성하여 출자비율 4억4000만원, 사업준비

금 9억1000만원, 이용과배당 9억1000만원을 달성했다.

특히 무상영농자재 8억8800만원 합계 31억1200만원 등 조합원에 대한 28.0%의 직·간접배당을 실시 이익잉여금 처분 안을 의결하였다.

이같이 높은 배당은 지난해 결산결과 25억3200만원의 당기순이익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부안농협이 3개 지점과 하나마트, 주유소, 영농자재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육묘장 및 무인헬기를 운영하여 조합원의 이용편익과 실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합원을 위한 4600만원의 보리수매용 톨 백 무상공급하고 4600만원 왕겨솥을 무상공급 하였고 8억9000만원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 농기계농비 절감에 기

여하고 있다.

부안농협은 이밖에도 지역인재양성과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1989년부터 2017년까지 1,661명에 8억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지난해는 촛불혁명이라는 민심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농업도 예전 정부와는 다르게 쌀값 안정조치를 비롯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농촌 구조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에 희망을 가진다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 농협이 살아남으려면 환부자신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안=이복수기자

세계적인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로 도약

정읍시, 지역특화 혁신산업 생태계 위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세미나 개최

21일 전북대학교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읍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동물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 혁신산업화를 모색하였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전북대학교 동물용의약품 수출연구사업단 주관으로 열린 지역특화 혁신산업 생태계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세미나는 정읍시 김용만 부시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을 비롯, 동물용의약품 관련 대학교수와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종호 상무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농생명과학 축산업 관련 풍부한 연구자원과 인력을 보유한 전북과 정

읍의 여건을 바탕으로 친환경 및 생물학적 제제 등 미래형 글로벌 신약 개발 추진을 통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향과 아울러, 산·학·연·관 협력력을 바탕으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포럼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출주형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대책, 동물약품 클러스터 추진방안, 동물약품 글로벌 신약 개발 방향, 곤충추출물 및 유래 코프린스 활용 미래형 동물용 의약품 개발, 우수 속대 추출물 활용 동물약품 및 동물건강 기능제 개발, 미생물제제 활용 동물건강기능제 시스템, 글로벌 진드기 구제 관련 산

업동향 및 전략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로서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정읍시의 농생명 기관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 생태계 조성 역시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었다.

동물용의약품 수출연구사업단 선종근 단장은 "이날 세미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포럼과 국내외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등을 운영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도출과 추진으로, 전북지역의 글로벌 동물약품 클러스터 구축과 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종모염소 보급사업' 실시... 생산성 향상 · 소득 증대 기여

정읍시에서는 지역 흑염소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을 늘리기 위해 '종모염소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모염소 구입 사업비 1억원 확보하여 올해 모두 66두를 보급할 계획이다.

흑염소사육은 대부분 방목 및 가두리 사육을 하면서 암수를 분리하지 않고 합사하여 한 마리의 숫염소가

몇 마리에 걸쳐 암염소와 교배하는 사례가 많아 근친번식의 폐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종모염소를 보급하여 그동안 생산능력 저하, 질병 저항성 감소, 유·사산 증가, 번식능력 저하 및 기형 등 근친번식의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열악한 시설, 질병에 의한 높은 폐사율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염소 사육농가들에게 경영비 부

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급수 워터킵 대형형 등 염소기재 지원에도 28백만원을 투입한다.

정읍시 최창훈 농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흑염소 사육 활성화와 농가의 사육 기반을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며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정발전 이끈다 '고창군 아이디어 왕 선발대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창군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2018 고창군 아이디어 왕 선발대회'를 추진한다.

군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시상금 상향조정과 실적 가점 제공의 인사특전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10여건에 불과했던 접수실적이 총 100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제대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아이디어 왕 선발대회는 연중 시행되며 특히 세 달에 한 번씩 세 차례 심사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중간 시상 을 하고, 이렇게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연말 제안심사위

원회를 통해 심사해 고창군 아이디어왕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청 공무원들은 늘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개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누적되어 고창군 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발전 정책제안 공모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받아 군정에 접목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도 관리원 운영

정읍시는 본격적인 액비 살포시기를 맞아 악취 민원예방과 완속 액비 살포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액비살포 지도 관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시 농축산과에서는 지난 20일 정읍시 제2청사에서 액비살포 지도관리원 액비유용업체 대표,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비살포 운영지침과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악취 저감시설을 자체 수리 점검하고, 유용업체는 악취가 없는 완속 액비 살포에 적극 동참하며, 액비살포 지도 관리원은 운영기간 동안 단 한건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 등 생활민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축산과에서는 완속된 액비는 작물 재배시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고령화로 인한 살포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미완속 액비는 살포시 악취의 주범이며, 작물에 대한 피해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경종농가도 양질의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우수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줄것을 당부하고,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의 활동으로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감소와 더불어 양돈농가 및 전문액비유용업체의 준법 의식 향상으로 가축분뇨 지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액비살포 지도관리원 운영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고창군과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고창 건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중소기업 공동직장이론이집 지원사업 등을 설명했고, 민생경제과장이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군은 기업 애로 해소 전담창구 및 현장가동반 운영과 기업소통 및 서비스를 위해 sms 문자 서비스, 시책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물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창을 만들어갈 비전을 발표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produc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